

# 인도네시아 건축을 찾아서(완)

## My Travel Sketch of Indonesia

장순용 / 삼성건축사사무소

by Chang Soon-Yong

### ◇ 연 재 순 서 ◇

#### <1회>

1. 출발집합!
2. 발리 이야기
3. 팜박씨링 사원
4. 힌두교의 종교적 특징
5. 발리의 전통가옥
6. 코끼리사원

#### <2회>

7. 족자카르타에서 학자 가이드를 만나다
8. 보로부드루
9. 빠원
10. 문두

#### <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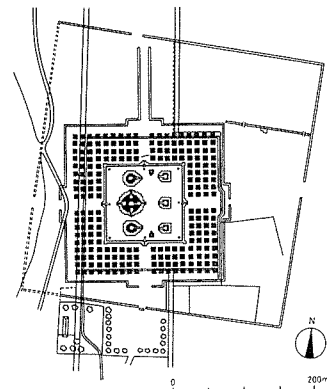
11. 프람바난
12. 세우
13. 플라오산
14. 칼라산
15. 공항의 해프닝
16. 발리로 향하다
17. 따만이윤 힌두사원
18. 맺음말

### 11. 프람바난(Chandi Prambanan)

오전에는 불교사원을 보았고 점심후에는 힌두교 사원의 답사길에 나섰다. 시바(Siwa) 또는 전설에 기인한 로로종그랑(Roro Jonggrang)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프람바난 사원에 도착했다. 동네 명칭이 프람바난으로 되어 있다.

오전에 보던 곳과는 달리 복잡한 장식을 한 탑들이 여기 저기 솟아 있고 주변에는 미처 복원하지 못한 석재들이 산적되어 있는 거창한 유적이다.

중앙에는 높이 47m의 시바탑이 동향으로 배치되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브라흐마 탑과 비슈누 탑이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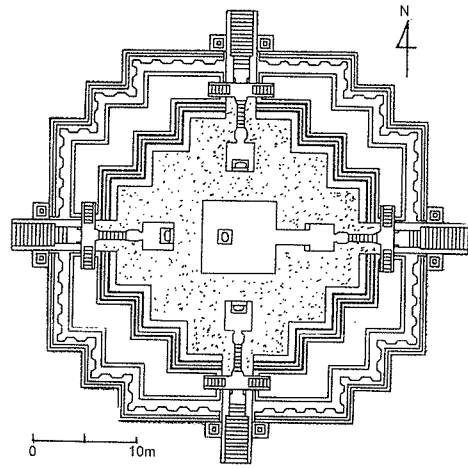


프람바난 사원 배치도

치되고 있어 중앙에 자리잡은 시바신이 중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바섬의 힌두교가 시바파라는 것도 알게 된다. 세탑의 정면에 마주보고 앉은 보다 작은 규모의 탑이 있고 그 안에는 신들이 타고다니는 동물상이 안치되었는데 시바탑에는 난디(Nandi)라는 등에 흑이 난 숫소가 있고, 비슈누 앞에는 가루다(Garuda), 브라흐마 앞에는 한사(Hansa)가 있어 신격으로 숭배된다고 한다.

6개의 탑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구역이 110m 사방으로 구획되고, 그 외곽으로 222×390m의 장방형 구역에 페르와라(Peruwara)라 부르는 작은 사당들이 234동이 배치되었고 사방의 중앙에 출입구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로로종그랑 전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악한 왕이 매일 젊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버릇이 있어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웃한 곳에는 착하고 지혜 많은 왕에게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밀림속에서 15년간 수련하여 신이 도와주는 막강한 힘을 갖추고 돌아온다. 악한 왕의 습격을 걱정하던 왕이 왕자에게 전쟁을 준비시키고, 왕자는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전투가 벌어지고 서로간에 많은 사상자를 낸 후에 악한 왕과 왕자가 맞대결하여 악한 왕이 죽게 되자 악한 왕의 군대는 도두 도망간다. 왕자가 군대를 이끌고 점령한 왕궁에 입성하여 뒤지다 보니 미모의 여인이 발견되고, 그녀는 왕자가 죽인 왕의 공주이며 이름은 로로종그랑인 것이 밝혀진다. 왕자는 첫눈에 반해 결혼을 신청하지만, 공주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일뿐만 아니라 막강한 힘을 지닌 우람하고 건장한 왕자지만 얼굴이 흉악스럽게 생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잘못하면 죽게 될 것이 두려워 하루 만에 1000개의 사원을 만들어 준다면 결혼하겠다고 조건을 세운다. 공주에게 반한 왕자는 불가능한 일을 실행키로 결심하여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튿날 새벽부터 신령들과 군대의 힘으로 건설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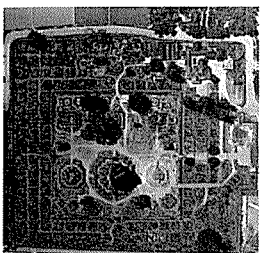


프람바난 시바사당 평면도

공주가 염려하던 바와 같이 약속된 사원이 다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성내의 처녀들을 찾아가 동이 트기 전에 대나무 북을 모두 두들기도록 요청하여 시끄럽게 북소리가 나자 성내의 모든 닭이 목청을 돋구어 울기 시작하고 주민들은 짐짓 농기구를 들고 들일을 보러 나가자 사원건설에 앞장서던 신령들이 날이 밝은 줄 알고 사라져 버리고 작업은 중단된다. 다 되어 가던 중에 별안간 작업이 중지되자 왕자는 그 이유를 찾아 다니다가 로로종그랑이 처녀들과 함께 대나무 북을 두들기고 있는 것을 보고는 공주의 간계임을 알게 된다.

건립된 사원의 수를 세어 보니 1000개에서 하나가 부족한 상태이고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자는 마을 처녀들에게는 처녀로 늙어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고, 공주는 별안간 아름다운 돌조각상으로 변해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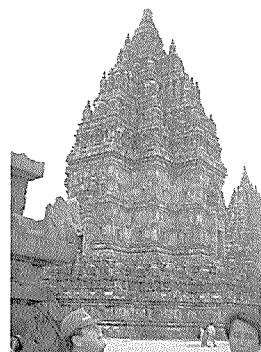
시바탑의 북편 감실에는 시바신의 부인인 두르가(Durga) 상이 있어 죽음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고 죽음의 방향인 북편에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상을 로로종그랑이라고 하여 평생 죽음을 다스리도록 왕자가 저주한 결과라고 믿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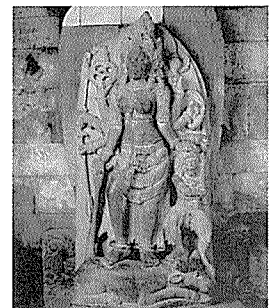
프람바난 사원 항공사진: 중앙에 크게 보이는 부분이 시바탑이고 그 아래가 브라흐마 탑. 위가 비슈누 탑이며 각 탑의 맞은 편에 신 전용의 승용 동물을 안치한 탑이다. 주변에 복원되지 못한 소탑들의 석재가 보인다



프람바난 사원 전경



시바탑 전경: 오른쪽 아래에 가이 드의 얼굴이 보인다



시바탑의 로로종그랑상: 시바의 부인인 두르가(Durga)상으로 북편감실에 안치되어 죽음을 관장한다고 하며 전설상의 공주인 로로종그랑상이라고도 한다. 관람객이 유난히 만진 부분이 검게 윤이 나고 있다

다고 한다.

이 전설에서 생각되는 것은 힌두교의 선악이 공존되며 상호의존적인 종교관이다. 악한 왕에게 미모의 공주, 위력이 있고 늠름한 왕자에게 추한 얼굴, 아버지를 죽이고 딸에게 청혼, 사랑과 저주 등의 장면이 연속되고 있다. 하루밤에 천개의 사원을 짓는 설화는 전남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 전설과 유사성이 느껴진다.

프람바난 사원의 건립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설이 있는 모양이며 힌두국인 북부 산자야 왕조의 피카탄 왕이 불교국인 남부 샤이렌드라 왕조의 공주와 결혼하여 힌두교와 불교의 합작으로 9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 사원은 1733년에 알려졌고 이후로 연차적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복원작업이 간간이 이루어져 답사 당시에 한 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불교사원에서 보았던 보리수를 중심으로한 상징적 문양과 라마이나 스토리도 비슷한 상황이고 보면 자바에서의 힌두교와 불교는 공존적이고 상호 교류적인 종교로 되었던 모양이다.

## 12. 세우(Chandi Sewu)

프람바난 사원의 북편에 세우사원이 있어 도로 이동하기로 하고 차량은 세우에 대기하도록 예정되었는데 일행중 한 분이 보이지 않아 찾느라고 가벼운 촌극이 벌어졌다. 그동안에 피곤한 다리뭉을 취하고 무사히 이동한다. 이 사원은 예정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발리의 권양이 건축설계를 하는 전문가팀이므로 가끔적 건축유적을 많이 답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추가시킨 것이라고 설명

한다.

이 사원은 10세기 말경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프람바난과 보로부드루 등을 포함한 중부 자와시대의 말기에 세워진 것이다. 천재지변 때문인지 11세기 이후에는 동부 자와로 대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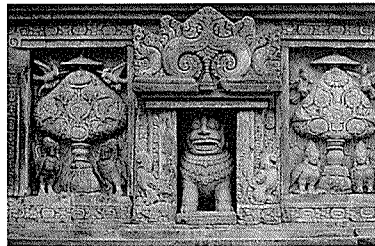
불교사원으로 주 사원과 250여개의 작은 사당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나 대부분이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건립시기의 차이가 건물의 장식적인 면에서 간략화되어 가는 모습이 느껴진다.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 수문장 격인 동자상이 있는데 한쪽 무릎을 꿇고 다른 무릎은 세우고 앉은 자세에 특 볼거진 배와 투실투실한 살집, 그리고 한 손에는 팔모방망이를 들고 다른 손은 몸에 휘감긴 뱀의 머리부분을 잡고 있다. 힘과 정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앞서의 사원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고, 발리에서는 마치 제주도의 돌하루방과 같이 제작하여 상품으로 전시하고 있던 것이 생각난다.

이 곳에서 관심있게 본 것은 승려들이 계를 받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곳이다. 지붕부분이 붕괴되었으며, 두사람이 들어가 서면 될 정도의 좁은 감실의 삼면에 조각된 등잔대가 그것이다. 대좌 위로 등잔을 받치는 가지가 세 갈래로 뻗치고, 그 위로 연꽃 받침대와 등불이나 향을 피울 수 있는 작은 감실이 조각되었다. 등잔 감실의 위는 귀면(이곳에서는 Kala라고 호칭됨)이 있고 감실은 바로 귀면의 아가리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수염이 좌우로 길게 늘어져 있고 머리 위에는 작은 보탑을 이고 있는 형상이다. 전성기에 웅장한 사원에서 엄숙한 수계의식을 행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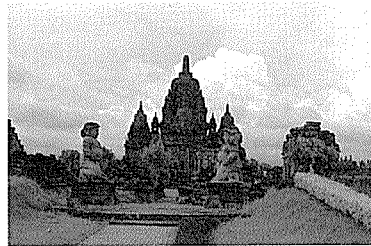
주변의 폐석재들은 복원되기를 줄지어 기다리듯이 무더기로 적치하고 있는데 석재 중에는 산스크리트어로 각자된 기록들이 간간이 보인다. 부재의 위치나 조각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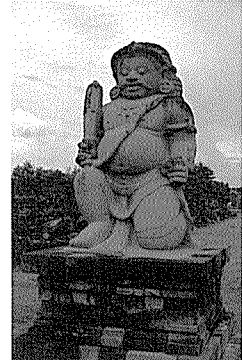
시바탑의 가네사상: 시바신의 아들로서 서편 감실에 배치되었고 얼굴이 코끼리상으로 왼손위의 경전을 코로 탐하는 모습에서 학문의 신으로 숭상된다고 한다



프람바난 사원의 주제적 조각: 문두사원에서 보이는 모티브에 사자상이 추가되었으며 장식적 의장이 완성된 모습이다



세우사원 전경: 입구좌우로 드와르팔라(Dwarp-ala)라 부르는 수호적 동자상이 배치되었다



세우사원의 드와르 팔라상

표시하는 기록들일 것으로 짐작되나 까막눈이 되어 저것이 글 써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돌무더기를 보고 있자니 평생의 과업으로 이런 사원을 복원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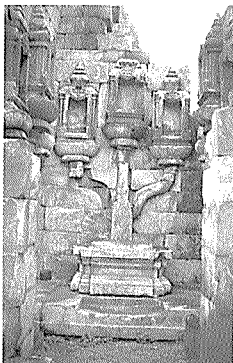
### 13. 플라오산(Chandi Plaosan)

세우사원에서 동쪽으로는 불교사원인 플라오산 사원이 있다. 19세기 중엽에 발견되었다고 하니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사원도 있는 것인지 국토가 광대해서 그런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 사원은 힌두교도인 파낭카란왕(Panangkaran, 760~780)이 불교도인 왕비를 위하여 건립한 불교수도원이라고 한다. 서향으로 배치된 이 건물군은 남북으로 두 개의 사원이 있는데 남쪽은 거의 폐허상태이고 답사한 곳은 북편 사원이며 이 사원 내에서도 쌍둥이 건물인 듯 보이는 북쪽 건물은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2층 건물로 세칸으로 구획되어 각실에 불상이 봉안되었으나 중앙칸의 불상은 분실된 모양이다. 2층은 목조 마루틀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는 마루가 없어 통층으로 되어 있다.

외관상으로는 지붕에도 창문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 3층처럼 보여진다. 창문에는 목재의 창살이 끼워졌던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 2층은 경서를 보관하거나 공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붕과 벽면에 치장된 장식들은 현재는 관심이 가지 않는다. 건물의 외관을 단순하게 정리하여 기억시키려는 직업적인 의식이 발동하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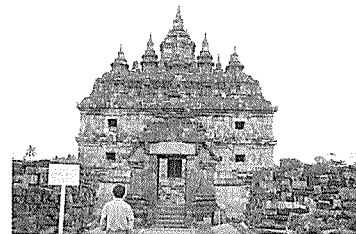
수계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추정되는 유적의 등형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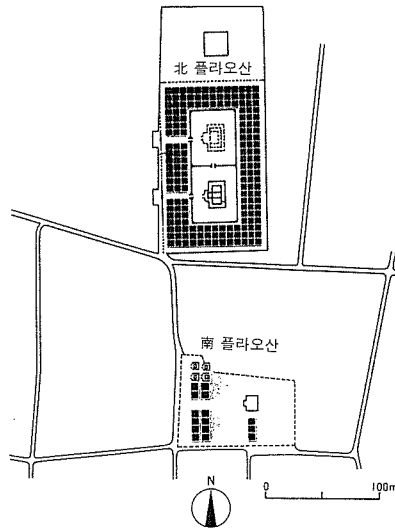
세우사원의 탑



북 플라오산 전경: 좌측 건물에는 복원작업이 진행 중이다



플라오산의 소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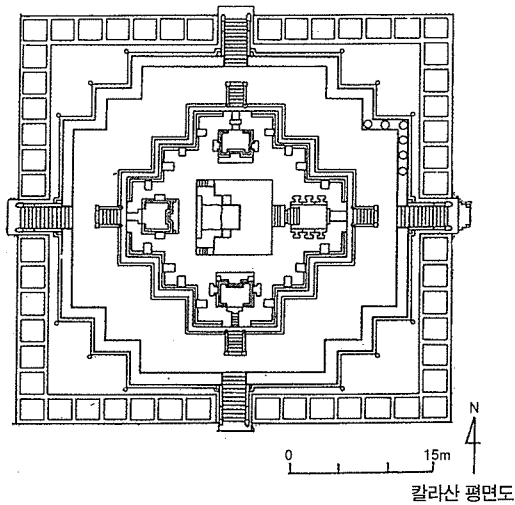
플라오산 사원 배치도

### 14. 칼라산(Chandi Kalasan)

족자카르타에서 마지막 답사장소인 칼라산 사원으로 향한다. 황혼이 깃들기 시작하여 조금씩 어두워지는 느낌이다. 프람바난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곳에서 발견된 비문(Kalasan Inscription)에 의하면 마타람(Mataram)왕조의 파낭카란(Panankaran)왕이 다라여신(多羅女神)에게 봉헌하기 위해, 778년에 건립된 불교사원이라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플라오산사원을 건립한 왕과 이름이 같으나 왕조가 틀리게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어서 논쟁중에 있다고 한다.

평면구성이 사방 대칭형으로 중앙과 사방에 감실이 있고 동편 감실에서만 중앙 감실로 들어가도록 된 것으로 보아 동향 배치로 보여진다.

하층 기단부가 넓게 형성되고 벽면이 비교적



높게 되어 감실 입구마다 귀면이 큼직하게 장식되어 있다. 주변 정리만 하고 복원작업은 하지 못한 것으로 멀리서 보면 돌무더기에 조각하다 중지한 듯한 인상을 준다.

비문이 발견되어 역사적인 중요성이 부여되기는 하겠지만 건축적인 모습이 확실치 않아 아쉬운 느낌이고 주변에 모아놓은 석재에서 맞춤기법의 디테일을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 나온다.

### 15. 공항의 해프닝

족자카르타의 답사 여정을 마치고 식당으로 향한다. 가는 도중에 서점에 들릴 수 있도록 방선생에게 부탁하니 한곳에서 정차시킨다.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자고 하여 급한 걸음으로 서점을 향해 들어간다. 백화점의 한 층에 서점이 있어 방선생에게 보로부드루와 족자카르타의 사원에 관한 서적을 찾아 달라고 하니 보로부드루 책 한 권 밖에 없다고 하여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말았다. 한 권이라도 샀으

니 그나마 다행이었고 인도네시아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아직은 미흡한 모양이라고 속단하고 되돌아선다.

오늘 하루는 별안간의 강행군이었는지 모두들 약간 지친 표정이 역력하였으나 식당에 들어와서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다. 공항에 나가야 하는 시간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 느긋하게 대화가 오간다.

식사후 공항에 도착하여 대합실에서 탑승수속을 기다리는데 예정시간이 다 되도록 수속하러 들어간 안내자가 나타나지 않고, 국내선이기 때문인지 연락에 대한 안내방송도 소홀한 것 같다. 드디어 권선생이 나타나는데 매우 불편한 듯한 안색에 상황을 설명한다. 비행기는 약간 지체되어 출발할 것이고, 문제는 예약된 좌석중에 4명의 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발리행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다른 비행기로 바꿀 수도 없으니 4명은 부득이 이곳에서 하루를 묵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예약된 좌석이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를 되물으니 항공사 직원들에게 충분한 팁까지 주었는데도 이모양이라고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회원의 2세가 3명 있으므로 나머지 잔류자 1명을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현지 여행사가 처리를 잘못한 때문이므로 변명도 궁색하니 어쩔줄을 모른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탑승수속 시간도 임박했으니 빨리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마침 최영집 소장과 필자가 2세를 대동하였으므로 4명이 잔류하자고 제안하니 최소장도 금방 동의한다. 그래서 답사교육에 성적이 불량한 네사람이 과외공부를 위해 잔류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서고 서둘러 탑승절차를 재촉하여 예정에도 없는 이별장면이 연출되었다.

일행이 출발한 후 최소장의 변이 기억에 남는다. 불가피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라도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어차피 여행이란 것이 뜻하지 않은 상황에 부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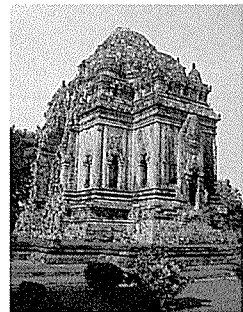
플로아산 수도원 정면



쌓아둔 석재: 적치된 석재에서 고대 인도어 글씨가 각자되어 있다



플로아산 좌측방에 안치된 불상



칼라산 사원 전경

치는 것에 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논없이 이심전심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고 오늘 저녁을 유쾌하게 보내는 방안 마련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다.

가이드 방선생이 현지 여행사와 통화하여 숙소를 예약시키고, 타고온 버스를 전세낸 듯이 타고 도착한 곳이 족자카르타 시내 근교의 자아카르타 호텔이었다. 방을 배정 받고 방선생은 편히 쉬라고 인사하고 떠나려는 것을 이 지역의 지리도 모르고 잠자리에 들기에는 너무 이르고 방선생의 활동 상황도 궁금하니 피곤하시겠지만 한잔 마시면서 시가지 구경도 할겸 안내해 주시겠느냐고 청해 본다. 하루 종일 가이드 하고 공항에서 난리를 겪은 처지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책임감을 느꼈는지 쾌히 승락한다.

휴대한 것은 카메라 가방밖에 없으니 풀을 놓을 짐도 없고 방에서 간단히 세수하고 잔류자 전원이 집합하여 나서니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다. 방선생이 현지 여행사에게 나와서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책한 모양이고 젊은 여인이 운전하는데 사장이라고 한다. 죄송하다는 사과를 점잖게 받아 들이고 안내하는 대로 따라간다.

마침 이슬람교의 라마단 기단이 끝나고 전국적인 휴가와 여행이 시작된 때가 되어서 시장도 일찌감치 파장된다고 한다. 도로변에 있는 족자카르타식의 닭튀김 집에 들려 맥주를 들면서 궁금하던 내용을 알아보며 한담을 나누었다. 닭튀김은 특미와 향이 나는 것이 구미를 만족시킨다. 미국의 KFC도 들어와 있으나 외국의 귀빈도 이곳을 찾는 별미중의 하나라고 소개한다. 비결은 열대식물을 이용하여 향을 내고 육질도 부드럽게 만든 것이라 한다. 추가로 주문하려니 문을 닫을 시간이라 거절한다.

자전거형 인력거를 타고 호텔에 도착하여 권선생은 내일아침에 들리기로 시간약속하고 떠나간다. 호텔의

수영장에는 조명이 밝고 야자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파란 물색이 매력적이다. 수영복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으니 야밤에 수영을 감행하는 것으로 족자카르타의 하루를 마감하였다.

## 16. 발리로 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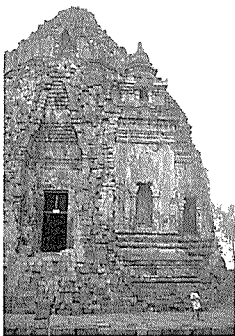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기상하여 숙소의 베란다로 나가보니 밤에 보던 경관과는 달리 야자숲에 새소리와 시원한 공기가 또다른 모습으로 시야에 다가온다. 베란다 벽에 장식한 타일에 완자문양이 2중으로 겹친 형태로 만들어져 시선을 끈다.

간단히 그 형상을 스케치하면서 완자문양이 아시아권에서는 공통적인 문양이고 특히 불교문화와 관련이 깊은 것을 재인식 할 수 있었다.

호텔에서 조식후 예정대로 공항에 나가 방선생과 작별하고 발리에 도착하니 권양이 미중 나왔다. 어제 벌어진 해프닝으로 일행으로부터 꾸중을 많이 듣고 걱정도 많이 한 모양이다. 덕분에 특별한 하루를 즐겁게 보냈노라고 위안의 말을 건네고 대기한 차에 오른다. 발리의 해수욕장에서 일행과 합류하면서 하루밤의 안부를 서로 묻는다. 객지에서 하루밤을 따로 지내고 만나니 새삼스레 다정하고 푸근한 기분이 든다. 여행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면에서 감성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

해수욕장은 영화에서 보던 것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와는 딴판이다. 토폴리스로 일광욕을 하는 관광객도 간혹 보이는데 괴이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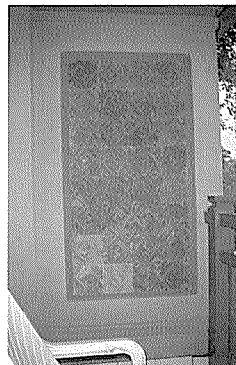
관광안내지에서 읽은 글이 생각난다. 식민지 시절에 군인들이 주문하면서 원주민의 토폴리스 차림에 군사들이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강제로 원주민에게 옷을



칼라산 사원 정면부분: 미완성된 부분이 많다



칼라산 사원 계단부 악어상



자아카르타 호텔 베란다의 이중 완자 장식



족자카르타 근교의 현대적 수도원의 조경

입고 다니도록 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는 등으로 수십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토폴리스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시대가 되어 주민들에게 그런 모습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는 시대변천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 17. 따만아윤 힌두사원

발리의 중국식당에서 점심을 들고 희망하는 사람만 따만아윤사원을 탐방키로 하고 나머지는 호텔이나 수영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이다. 발리의 재래시장을 구경까지는 제안도 나왔으나 동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자 답사길에 따라 나서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첫날에 발리의 사원을 답사한 바가 있으므로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판단과, 그래도 이왕 왔으니 보고 가자는 생각에 패가 갈라진다.

오늘은 촬영을 줄이고 사원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고 승차하여 중부지역에 있는 사원앞에서 하차한다. 사원 외곽으로 해자가 둘러지고 동편의 냇가를 끼고 민가가 있어 분위기가 한가한 전원풍경이다. 일반적인 관광코스에서는 선호도가 높지 않은지 관광객도 붐비지 않는다.

다리를 건너 입구를 들어서니 오른쪽에 공회당이 큼직하게 목조로 만들어져 있다. 한때는 닭싸움이 성행하여 정기적으로 투계시합을 이곳에서 열기도 하였다고 한다. 벽체는 없이 지붕을 중층 구조로 만들어 더운 공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한 초기집이다. 대나무로 서까래를 설치하고 그 위에 직접 이엉을 층지어 설치한 경량지붕구조인 때문에 용이하게 대형 공간을 만들고 있다.

서편 모퉁이에는 벽돌로 축조한 단위로 2층의 초기형 망루가 설치되었다. 건물의 벽에 만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시야가 활짝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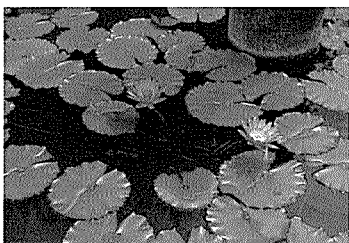
발리에서 보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중문을 들어서면 사당구역이 담장으로 둘러지고 담장 밖으로 다시 도랑이 구조된 속에 다층의 초기형 사당이 규칙적으로 배치된 모습이 보인다. 모시고 있는 신의 등급에 따라 1, 3, 5, 7, 9층으로 신당을 만든다고 하며 단층의 신당에는 기단위로 다시 단을 높여 치장하고 의지를 놓았다. 유교식으로 보면 위패상과 같은 형태이다. 발리식 힌두교의 속성을 모르니 그냥 보는 수밖에 없다. 일층의 지붕이 큼직하고 그 위로 급격히 체감되어 만든 다층 초기탑을 보니 경주의 정혜사지 13층 석탑이 연상된다.

발리 사람이 경주에 다녀와서 초기탑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실없는 망상에 빠져 보기도 하였고, 초기 지붕에 석재의 절병통을 올려 놓은 것을 보니 초기형 정자에 절병통을 사용하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행과 기념촬영을 하고 귀로에 오른다.

## 18. 맺음말

따만아윤 사원이 인도네시아에서의 마지막 답사지가 되고 오후 늦은 시간에는 은세공점, 목조각점, 바틱점 등을 둘러 간간히 기념품을 사고, 특히 바틱점에서는 관광진흥책으로 제작공정을 옥외에서 실현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행중의 청년에게 입은 채로 셔츠 등에 직접 그려주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능숙한 붓놀림으로 열대의 풍경이 그려진다. 물론 염색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귀국해서 세탁 두번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는 했지만 당사자에게는 추억이 될 만하였다.

저녁식사는 해물음식점으로 예약되었고 종업원은 일본어 아니면 한국말로 인사를 한다. 무대의 악사는 우리 일행이 한국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고 한국가요를 멋지게 중



수도원의 연지에 청연화가 피어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품종이라고 한다. 한국의 단청문양에서 청색으로 표현한 연화가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따만아윤 사원의 망루



따만아윤 사원 공회당 내부

창으로 뽑는다. 앙콜 신청에 더욱 신바람이 나게 부르고 여정의 마지막 만찬은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어느덧 출발시간이 되었다.

발리와 자카르타의 공항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어 밤늦도록 기다림에 지치고, 드디어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비몽사몽간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오전 10시경이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탑에 장식된 귀면이 경주지역에서 발굴된 귀면과 유사성이 있게 보여지고, 신라시대의 석탑 갑석에서 귀에 모를 접고 약한 곡선을 만드는 기법을 족자카르타의 사원에서 보았을 때는 우연의 일치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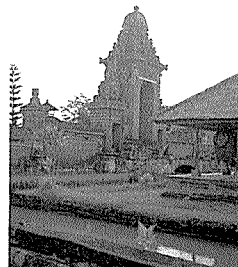
같은 농경문화권이고 기무를 즐겨하는 공통적인 속성이다. 관혼상제의 통과례에서도 닮은 점이 많다는 설명을 듣고 보면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상관관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싶다. 특히 한국의 석탑은 중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족자카르타의 사원의 건물에서 복잡한 지붕의 장식을 생략하면 한국적인 석탑과 비슷한 모양을 유추할 수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으며, 답사하지 못한 사원의 사진을 통하여 보면 그러한 생각이 절제 느껴진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유엔가입국이 되어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차체에 국제적인 문화유적 복원작업에 우리도 참여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세계적인 유적에 투자하여 조사한 바를 책으로 만들어 외국의 문화를 일본에서 독점적인 사업성을 구축하고 있는 현실이 부럽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국제적인 교역의 시대에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고서는 실리적인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투자하여 벌어들여야 할 외교적인 공세만으로는 역부족이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절실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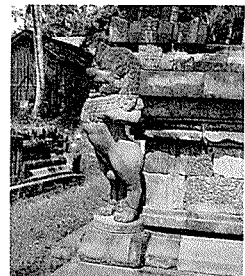
따만아윤 사원 신당



따만아윤 사원의 소신당



따만아윤 대문 전경



가웬(Chandi Ngawen)사원의 기단부 사자상: 이 사원은 답사하지 못하였으나 문두 사원에서 동쪽으로 5km 거리에 있다고 하며 사자가 기단부를 짊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 신라시대의 쌍사자 석등과 4사자 석탑이 연상되어 책에서 전제하였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대합실에 집결하여 무사히 여정을 마치게 된 것과 회장님 이하 집행진의 헌신적인 노고를 치하하고 또다시 본연의 자리를 찾아 뿔뿔이 갈 길을 찾는다.

그동안 국내의 동양문화사는 중국, 한국, 일본 위주로 설명되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남방문화권으로 보고 간략하게 기술되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전정보 확보가 미흡하여 답사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았다. 특히 육상의 문화와 정보교류 통로인 실크로드에 상당한 연구가 되었으나 해상 실크로드에 대한 것은 초보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 시대의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여 경주의 궤릉에는 서역인의 석인상이 있는 점과 장보고가 한반도의 해상권을 확립하여 무역이 폭넓게 진행되는 상황은 신안 앞바다의 무역선 발굴로도 입증되고, 특히 당나라의 장안은 국제무역도시로 자리 잡혀, 장안에서 신라의 이름이 이슬람 상인에게 금이 흔한 나라로 알려졌다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당시에 간접적이던 직접적이던 간에 인도네시아와도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더우기 인도네시아에서도 통일신라시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그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고 하므로 교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여행후 얼마 안되어 여행기를 써달라는 원고 청탁이 있었고 짧은 여정에 수박 겉핥기 식이어서 주저하였으나 한번 다녀온 곳 언제 또 가겠는가, 다녀온 내용을 잊기 전에 기록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에 쓰다보니 내용도 없이 장황하게 되어 겸연쩍다.

한길회의 윤석우 회장과 방철린, 최영집 총무의 노고를 지면 통하여 감사드리고, 장석용 선배를 비롯하여 여행을 함께 한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